

지친 일상 위로하는 블루스 만나세요



김거봉 '봉살롱' 공연...4월 6일 '기타살롱 유엔미' 입장료 100원
 몇 번 맛봐야 진가 알 수 있는 블루스, 10여년 빠져든 이유
 지역 뮤지션도 자신의 곡으로 공연 가능하다 것 알고교과

그의 이름 김거봉(金鉉奉·사진). 본명이 따로 있었거나 하겠지만 37년 평생 써 온 이름이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거봉블루스'로 활동을 해온 김씨는 광주 인디 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가 진행하는 '봉살롱'은 오는 4월6일 15회를 맞는다. 지난 2017년 그가 운영하는 전남대 후문 '기타살롱 유엔미'에서 두 달에 한번씩 공연을 열었던 지 3년째다.
 봉살롱을 열기 전에는 '부드러운 직선', '보헤미안' 등 광주의 작은 공연장에서 관객을 만났고 전남대 후문에서 버스킹을 하며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 왔다.
 고교생 시절 독일 랍수타인, 미국 마릴린 맨슨 등의 메탈 음악을 추구해온 김씨는 자연스럽게 블루스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미국 흑인들의 민요와 같이 취급되던 블루스는 에릭 클랩튼, 신촌블루스 등 거목을 만나면서 대중과 친숙해지게 됐어

요. 첫입부터 맛있는 음식이 메탈이라면, 블루스는 몇 번 먹어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장르죠. 제가 블루스를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씨는 강렬한 인상 탓에 오해를 산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주위에서 흡연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레 걸음 습으로 질 판단한 이들도 함께 지내다 보면 선입견을 버리곤 해요. "블루스치고너 무척하다"는 제 앨범에 대한 평을 듣고 음악적으로 더 성숙해질 필요를 느꼈어요."
 1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걸어온 블루스 외길은 앨범을 만들며 열매를 맺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개의 자작곡이 담긴 앨범 'BLUES+'을 발매했다. '댄스 댄스 블루스'와 '두 개의 태양' 등은 그가 즐겨 읽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지금은 음원사이트에서 제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앨범을 낸 뒤 2년 동안 1만 6000원을 벌게 되면서 뮤지션에게 불리한

음원 유통 구조를 되돌아봤거든요. 지난 일을 경험 삼아 올하는 10여 곡으로 구성된 정규 앨범을 낼 예정입니다."
 김씨는 인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퇴짜'를 맞는데 익숙하다고 말한다.
 "독특 기간을 놓쳐 원하던 대학에 못간 게 인디 음악에 발을 들여놓은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봉살롱도 처음에는 파트너가 있었는데 공연 며칠 전에 그만두겠다는 통보가 오더라고요. 부랴부랴 포스터를 고치고 우어곡절 끝에 공연을 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음악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다음 달 6일 오후 6시 30분 열리는 공연 입장료는 100원이다. 김씨의 장성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공연을 즐긴 뒤 원하는 만큼 후원을 하면 된다. 최선명(기타)·이정우(퍼커션)씨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김원중의달거리', 바닷프로젝트 '골방 음악회'처럼 100회를 채워야겠다는 강박은 없어요. 지역 뮤지션도 자신의 음악으로만 채운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죠.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블루스처럼 꾸준히 관객을 만나는 음악을 하고자 합니다."
 문의 010-9450-8228.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책 밖에서 또 다른 책을 찾다

박영도전 28일~4월 2일 무안 도립도서관 남도화랑

박영도 작가 개인전이 28일부터 4월2일까지 무안 도립도서관 1층 남도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서예'라는 활동 분야에서 벗어나 재료와 기법 등을 확장하며 변화를 시도한다. 지금까지 지출한 작업했던 화선지에서 벗어나고, 주 소재가 됐던 '문자'에서도 한발 비켜서 자신만의 개성이 깃든 작품을 선보인다. 박 작가는 새로운 실험에 대해 '서(書) 밖에서 또 다른 서(書)를 찾고 싶었다'고 말한다.



'색즉시공'

찰나, 즉흥, 함축에 의미를 두고 자유롭게 표현한 비구상 작품들은 자유분방함이 묻어 난다. 화선지 대신 마와 광묵 등 천 위에 작업한 작품은 묵직한 검은 먹색과 자유로운 번짐, 두텁게 바른 아크릴 물감이 어우러져 독특한 느낌을 전하며 특히 붉은색, 흰색과 검은색 바탕의 대비는 강렬함을 전한다. 또 천 조각, 나무 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화면에 변화를 줬다.
 화면에 종종 등장하는 '글자' 역시 문자가 갖고 있는 조형성을 강조한 자유로운 해석이 가미돼 비구상 느낌이 강하게 묻어난다.

원광대 미술대학 서예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지금까지 '마음글씨전', '도자전 각전' 등 12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 서예대전, 전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나무술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인서예문화, 전각아카데미에서 지도하고 있는 박 작가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도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1-288-52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비타포엠 북 콘서트 미디어 체험·그림책으로 만나는 아시아

28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비타포엠 북 콘서트 가 28일 오후 7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다.
 비타포엠 시낭송회 (회장 이지담)는 지난해 새로 시집을 펴낸 이 인범, 정양주(사진), 김황흥, 김애숙 시인의 북 콘서트를 중심으로 시낭송회를 진행한다.
 이번 비타포엠 북 콘서트에서는 네 명의 시인들의 북 콘서트를 비롯해 전숙경, 주영국, 전숙, 고영서 시인, 강애영 소설가의 낭송과 박승원, 오지희의 현악 이중주 공연, 김충남·구향림의 시낭송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비타포엠 시낭송회는 지난 2008년 12월에 시작해 그동안 시를 함께 읽고 시인들의 창작과정 이야기를 듣는 행사를 진행해 왔다. 2년 동안의 휴식기를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비타포엠 북 콘서트 시낭송회는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작가들과 시인, 독자들이 어울려 시를 읽고 듣는 즐거움을 나눌 예정이다. 문의 010-4704-8144.
 /박성현 기자 skypark@

미디어 체험·그림책으로 만나는 아시아

ACC 어린이문화원 봄맞이 콘텐츠 새단장
 독창적 콘텐츠, 미디어 접목한 체험관, 중앙아시아 그림책으로 다채로운 아시아 이야기를 만난다.
 국내 최대 어린이문화 공간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어린이 문화원이 봄을 맞아 새롭게 구성된 콘텐츠로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어린이문화원은 지난 2015년 11월 개관 이래 280만 명이 다녀가고 1일 평균 관람객이 2800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이곳에는 어린이체험관, 유아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어린이극장, 어린이장작실습실 등이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콘텐츠는 아시아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속 아시아는 어디야?'와 아시아스토리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는 '탄탄한 중앙아시아 그림책 전시'가 그것.
 먼저, 아시아 문화와 미디어기술을 접목한 어린이 체험 공간 구성이 눈에 띈다. 어린이체험관은 놀이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체험관

자연·생활, 지식·문명, 소리·음악의 세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자연과 생활영역의 습지림 속 '변신 준비, 가면을 따오' 공간을 지난 1월 '세계 속 아시아는 어디야?' 공간으로 부분 개편했다. 디지털 영상물, 일러스트, 오브제 등을 활용해 아시아 생활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

또한 ACC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5개국 작가들이 글을 쓰고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들의 그림을 입혀 협업한 5권의 그림책을 전시한다. 무료로 열람 가능하고 전시는 4월 7일까지 운영된다. 문의 1899-5566.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음악으로 '인생 2막' 금호시니어콘서트

28일 광주 금호아트홀

음악과 함께하는 인생 2막 이야기가 '금호시니어콘서트'에서 펼쳐진다.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은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4회 금호시니어콘서트를 개최한다.
 시니어콘서트 출연진은 모두 만 40세 이상의 아마추어 연주자와 현직에서 은퇴한 연주자 등 총 10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치료과사, 정년 퇴임한 교수, 금융업계 종사자, 음악학과 동문 등 저마다 다양한 삶을 살아왔다.
 먼저 이상열씨가 슈만의 '로망스' 중 2악장 '꾸밈없이 진심으로'를 플루트로 연주하며 문을 연다. 테너 봉필수는 마스네의 오페라 '베르테르' 중 '왜 나를 깨우는가'로 실력 발휘를 한 뒤 자신의 큰 딸 영서씨와 포스터의 '기도'로 호흡을 맞춘다. 바리톤 기세관은 슈베르트의 '넘치는 눈물', 김동진 '진달래꽃'을 부르고 소프



바리톤 기세관 바리톤 임동윤

라노 심옥호 '그대 어디쯤 오고 있을까', 바리톤 임동윤 '그리운 사람아', 테너 유창종 오페라 '토스카' 중 '오묘한 조화', 테너 장흥식 '그대 창밖에서', 바리톤 이형식 '가고파', 바리톤 박원 '내 사랑 망초여' 등도 무대를 채운다.
 대학 음악학과 87학번 친구들이 결성한 퀸트 'ST87양상'은 영화 '미션' 수록곡 '가브리엘의 오보에'와 열가 '사랑의 인사' 등을 연주하며 무대를 마무리한다. 전석 5000원. 문의 062-360-843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방수
 특허공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택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100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IPALG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